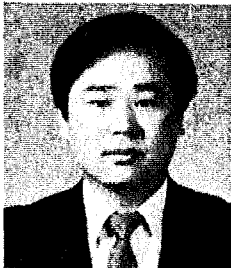


日本の漁港 오늘과 내일

李 弘 植 (中央大學校 土木工學科 助教授 · 工博)



1. 일본어항의 역사

일본의 국토는 산지가 많고 평야가 비교적 적은 사정으로 인하여 오래전부터 바다로 진출하여 어류를 채취하며 생활하여 왔다. 국토의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남쪽에서는 난류, 북쪽에서는 한류가 합치면서 또한 연안과 외해의 지역에서는 다양한 해양생물이 풍부하게 서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연안일대에는 어촌집락이 형성되었고 특히 江戸(Edo)시대(1603년~1868년)*에 들어와 어망어업이 발달하였고 어획물을 식용으로만이 아닌 비료에까지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산물의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각지에 중간상인과 연안어촌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 당시에는 어업형태가 매우

전근대적이고 어선도 무동력선이었기 때문에 어민의 대부분이 사빈, 만, 갯의 배후면, 하구 등을 이용하여 어선의 계류장, 물양장으로써 이용하였다. 또한 어촌도 당시에는 어업의 근거지로써 지리적 조건이 좋은 곳에 형성되었다.

明治時代(1868년~1912년)중반에 들어와서 어획기술, 항해술 등의 진보, 어선의 동력화가 진행되어 외해, 원양어업이 발달하고 어획고도 급증하였다. 대단히 비싼 어선의 안전 확보, 어획물의 신속한 처리 등의 문제부터 폭풍·태풍시에도 안전한 박지를 갖는 어항시설에 대한 요구가 급속도로 높아지게 되었다.

1908년에 伊豆式根島에 어선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피난어항을 만들기 위해 나라로부터 당시 2만엔의 보조금이 교부되었다. 이것이 어항수축에 대한 국고조성

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후 1918년까지는 어항에 대한 국고의 보조는 전혀 없었고 오로지 어항에 대한 조성의 대책의 모색만이 계속되어, 전국의 주요 200개 어항에 대한 현지조사나 모든 외국의 어항의 현지시찰에 의한 검토 등이 행하여 졌다. 1918년이 되어 정부는 본격적으로 어항정비에 박차를 가하여 당시 27만엔의 보조금의 예산이 책정되어 지방공공단체가 수행하는 수축사업에 대하여 공사비의 절반을 보조하는 것으로 되었다.

이로부터, 1918년에는 小名濱(福島縣), 白濱(千葉縣), 能生(新潟縣), 波切(三重縣), 油津(宮崎縣)의 각 어항이 1919년에는 八戸(靑森縣), 1920년에는 瀧(石川縣), 富江(長崎), 1921년에는 三崎(神奈川縣), 惠曇(島根縣), 室津(高知)의 어항들이 그 당시 요구되는 비교적 대규모적인 어항의 공사가 점차로 착공되었다.

이후 제1차 세계대전후의 경제불황에서는 병폐된 농촌, 어촌의 진흥책으로써 1925년 어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하는 선박의 정박지의 수축에 대하여, 40%이내의 국고보조가 시작되었다. 또 대규모 어항과 정박지의 중간형태의 소규모 어항에 대하여도 1929년부터 국고의 조성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결국 대어항, 소어항, 선박정박지를 셋으로 한 주요 골자의 어항시설에 대한 국고보조의 제도가 한층 더 정비된 것이다.

이 이외에도 北海道에 대하여도 1919년부터 척식비로써 도청의 직영공사로 어항수축이 행하여지고 정박지에 대하여 각 시, 촌에 대

한 보조사업으로써 정비가 진척되었다.

한편, 樺太, 台灣에서도 직영공사로써 어항정비가 활발히 이루어 졌다. 2차대전의 패전까지 정비에 착수한 어항은 대규모 79항, 소규모 57항, 정박지 1501개소에 달하고 있다. 1945년 패전에 의해 어장의 상실과 극단의 식량난으로부터 수산업의 부흥은 국가의 중요시책으로써 그 위치를 점하게 되었고

●●●

**1948년 수산청에
어항과가 설치되고
행정기구의 정비가
이루어 졌다.
이어서 1950년에
전국어민의 여망인
「어항법」이 제정되고
어항정비의 방향설정과
어항관리의 적정화가
도모되었다.**

●●●

어항정비도 공공사업의 하나로 포함되어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우선 1948년 수산청에 어항과가 설치되고 행정기구의 정비가 이루어 졌다. 이어서 1950년에 전국 어민의 여망인 「어항법」이 제정되고 어항정비의 방향설정과 어항관리의 적정화가 도모되었다. 1950년에 어항법에 입각하여 최초로 어항정비계획이 책정되었다. 1951년부터 실시되어 여기서부터 어항정비의 신시대가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2. 어항정비의 과정
이러한 배경으로부터 국가의 주

요 기간산업의 하나인 어업의 근대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어항정비계획이 1951년부터 각의를 거쳐 시작되었다.

제1차 어항정비계획부터 1987년 제7차 어항정비계획이 마무리되고, 1988년에는 제8차 어항정비계획이 시작되었다. 제1차 계획부터 제7차 계획 기간까지의 실적을 항수별, 사업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제1차 어항정비계획 (1951년~1954년)
수축사업 375개항
- 제2차 어항정비계획 (1955년~1962년)
수축사업 560개항
국부개량사업 752개항
총항수 1,312개항
- 제3차 어항정비계획 (1963년~1968년)
수축사업 377개항
개수사업 440개항
국부개량사업 1066개항
어항관련도정비사업 213개항
총 2096개항
- 제4차 어항정비계획 (1969년~1972년)
수축사업 389개항
개수사업 570개항
국부개량사업 936개항
어항관련도정비사업 259개항
어업집락환경정비사업 3개항
총 2157개항
- 제5차 어항정비계획(1973년~1976년)
수축사업 420개항
개수사업 667개항
국부개량사업 1086개항
어항관련도정비사업 208개항
어업집락환경정비사업 36개항

총 2417개항

단, 1972년~1977년까지의 어업
집락환경정비사업은 공해대책방지
비로 쓰였음.

○ 제6차 어항정비계획(1977년~
1981년)

수축사업 450개항

개수사업 820개항

국부개량사업 2120개항

어항관련도정비사업 241개항

어업집락환경정비사업 49개항

어항환경정비사업 60개항

총 3740개항

○ 제7차 어항정비계획 (1982년~
1987년)

수축사업 480개항

개수사업 870개항

국부개량사업 252개항

어항환경정비사업 30개항

총* 약 1632개항 (*통계미정리)

이와같이 현재 일본의 전국 어
항이 제반시설의 약80%가 정비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위에서 열
거된 어항관계사업에는 실제로 많
은 사업이 있으나 주요한 것을 열
거하면

- ① 어항수축사업
- ② 어항개수사업
- ③ 어항국부개량사업
- ④ 해안보전시설정비사업
- ⑤ 해안보전시설보수사업
- ⑥ 해안환경정비사업
- ⑦ 어항관련도정비사업
- ⑧ 어업집락환경정비사업
- ⑨ 어항환경정비사업
- ⑩ 공해방지대책사업
- ⑪ 재해복구사업
- ⑫ 재해관련사업

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어항관계실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
으며 1개의 어항에서 2개이상의



일본의 磯浦漁港

사업을 행하고 있는 어항도 있다.
이들의 어항관계사업중 어항정비
사업이란 상기의 ①, ②, ③ 을
말하고 기간사업을 이루고 있다.

어항수축사업이란 어항시설의
신축, 증축, 개축, 보수, 혹은 제거,
어항구역내 토지의 결손방지, 어
항구역내의 토사유입방지 등을 대
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하며, 그
이외에는 공해의 원인이 되는 물
질의 퇴적, 오탉의 정화 등의 공
해방지를 위한 사업도 행한다.

또 개수사업은 수축사업의 보조
로써 수산업의 정세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어항의 정비를 행하는
사업으로 1963년에 신설되었다. 수
축사업으로 정비되는 어항을 제외
한 어항으로 대부분이 긴급히 정
비를 필요로 하는 어항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국부개량사업은 어항시설의 유
지보강, 혹은 국부적인 개량공사
를 행하는 것으로 어항의 기능을
현저히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다.

1988년부터는 제8차 어항정비계
획이 실시되고 있다. 이 8차계획
의 목표는 정비된 어항시설의 효
율적인 문제와 관리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응하기
위한 점을 기본으로 하여 수산업

이 놓여있는 심각한 위기에 대처
하여 21세기를 향한 어업활성화와,
해양성 레크레이션의 진전에 따
른 해당지역의 유형화, 현상문제
점의 파악을 통하여 수산진흥을
위한 기본방향을 결정하여 marino-
vation을 구상하고 있다.

1951년부터 실시된 제1차 계획
에서 제8차 계획의 진행상태의 어
항의 정비상황을 볼 때 그 계획은
일관성이 있고 항구적인 어항계획
의 장래성을 포함하여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8차 계획의 마리노베이션 구
상 역시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Master Plan을 세운 것이다. 이것
은 그 지역의 주민생활의 지침과
같은 것으로 대단히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마리노베이션의 구
상에 관하여 그 배경, 동기, 목표
등에 대한 것은 우리에게도 매우
흥미로운 점을 느끼게 한다. 그것
에 관한 자세한 보고는 시간상 다
음 기회가 얻어질 때로 미루기로
한다. (다음호에 계속)

※1600년 徳川家康이 Sekigahara
(関ヶ原) 전투에서 승리하여 1603
년 막부로서 江戸(현재의 東京)에
입성한 후부터 4대째의 막부인 徳
川慶喜의 기간으로 약200년간의
번영의 시대를 가리킨다. 徳川시대
라고도 불리운다.